경향신문

안동 산불 '애태운 47시간'

기사입력 2020-04-26 21:41

- 건조·강풍 탓 진화 어려워...산림 800ha·집 3채 등 소실
- 주민 등 1270명 긴급대피
- "옆마을 불 1시간 만에 번져 황급히 몸만 빠져나왔다"



'축구장 1120개 크기' 산림 태우고 지난 24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25일 밤사이 남후면 단호리 일대로 번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헬기 32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사흘간 축구장 약 1120개(국제규격 7140㎡ 기준)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도·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9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야산(해발 250m)의 4부 능선에서 불이 나 바람을 타고 9㎞가량 번진 끝에 26일 오후 2시3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최초 발화 이후 약 47시간 만이다.

앞서 산림당국은 전날 정오쯤 불길을 잡았으나, 오후 2시쯤부터 초속 8.9m의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다시 번졌다. 산불이 재확산하면서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남안동IC 구간(약 16km)은 25일 오후 5

2020. 4. 27. 인쇄 : 네이버 뉴스

시40분부터 양방향 통행이 금지됐다. 중앙선 안동~의성 간 철도 운행도 오후 9시부터 중단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일출 시각인 오전 5시38분부터 헬기 32대와 인력 3881명, 장비 362대를 집중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전날 산불 현장을 중심으로 초속 8m가 넘는 강풍이 불었지만, 이날은 초속 3~6m로 조금 약해져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산불 기세가 꺾이면서 도로·철도통행도 재개됐다.



주민들 삶터 모조리 태우고 26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에서 한 주민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타버린 집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림청 추산 800ha(잠정 집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 3채와 창고 2동, 비닐하우스 4동 등이 불에 탔다. 축사 3동도 피해를 입어 돼지 830여마리가 폐사했다.

산불 현장 인근 남후면 단호리·고하리·검암리 등지에 살던 주민과 요양원 입소자 등 1270명은 지난 24일부터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원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가 이날 정오를 기해 모두 귀가했다.

단호1리 이장 손창규씨(58)는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보니 직선거리로 600~700m쯤 떨어진 옆 마을의 불길이 1시간 만에 넘어와 두려웠다"면서 "마을 주민 30~40명이 가재도구를 제대로 챙길

2020. 4. 27. 인쇄 : 네이버 뉴스

틈도 없이 황급히 몸만 빠져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불이 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병산서원과 북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져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 방향을 고려해 방화선을 구축했다. 또 병산서원 등에 물을 뿌리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불길이 반대 방향으로 번져 추가 피해는 없었다.



산불 속에서 살아남은 새끼돼지들

산림당국·지자체는 산불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안동시 등에 따르면 해당 야산은 등산로가 없어 평소 사람이 자주 찾지 않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소각 행위로 불길이 시작된 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불이 나던 시점을 전후해 사람이나 차량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진술이 있어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말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에 건조경보·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아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2&aid=0003005860